

『동의보감』과 『제중신편』에 기재된 처방중 수처대황의 종류와 효능에 대한 고찰

이상원 · 김현정 · 김진숙*
한국한의학연구원, * 교신저자

Abstract

Study on the processing methods of Rhei Rhizoma in Donguibogam and Chejungsinyeon

Lee Sangwon, Kim Hyeunjeong, Kim Jinsook*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Corresponding Author

The Effects and processing methods of Rhei Rhizoma from Donguibogam and Chejungsinyeon were studied. Through the study, we found 21 kinds of processing method of Rhei Rhizoma in Donguibogam and Chejungsinyeon. Processing methods used in Donguibogam and Chejungsinyeon were effective from reducing side effects of Rhei Rhizoma, and were safe in clinical application. the aims of processing methods of Rhei Rhizoma were safer application by reducing poisonous character, and increase the range of clinical application by using 21 kinds of processing methods.

Key words : Donguibogam, Chejungsinyeon, processing method, Rhei Rhizoma

대황은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하품(下品)에 “大黃味苦寒 注下瘀血 血閉 寒熱 破癥瘕 積聚 留飲 宿食 蕩滌腸胃 推陳致新 通利水穀 調中化食 安和五臟 生山谷”이라고 기록된 이래 지금까지 임상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대황(大黃)은 마디풀과(polygoaceae) 식물로 장엽대황(掌葉大黃; *Rheum palmatum* L.), 당고특대황(唐古特大黃; *Rheum tanguticum* Maxim.

ex Balf.) 또는 약용대황(藥用大黃; *Rheum officinale* Baill.)의 근경(根莖)을 말한다. 대황은 황량(黃良), 화삼(火蓼), 부여(膚如), 장군(將軍), 금문대황(錦紋大黃), 천군(川軍), 준(峻)이라고도 불린다. 장엽대황(掌葉大黃)은 규엽대황(葵葉大黃), 북대황(北大黃), 천수대황(天水大黃)이라고도 하며, 당고특대황은 계조대황(雞爪大黃)이라고도 하며, 약용대황(藥用大黃)

은 남대황(南大黃)이라고도 하며 다년생 대형 초본 이다.)

표 1. 대황의 기원식물과 이명(異名)

	당고특 대황	장엽대황	약용대황
기원식물	<i>Rheum tanguticum Maxim. ex Balf.</i>	<i>Rheum palmatum L.</i>	<i>Rheum officinale Baill.</i>
이명(異名)	계조대황(雞爪大黃) 서대황(西大黃)	규엽대황(莢葉大黃), 북대황(北大黃), 천수대황(天水大黃)	남대황(南大黃)

대황은 성질이 한(寒) 무독(無毒)하고 고(苦)하다. 그래서 비(脾), 위(胃), 대장(大腸), 간(肝), 심포경(心包經)에 들어가 작용을 한다. 대황은 청열통장(淸熱通腸), 양혈해독(涼血解毒), 축어경통(逐瘀經痛)의 효능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실열변비(治實熱便秘), 적체복통(積滯腹痛), 사리불상(瀉痢不爽), 습열황달(濕熱黃疸), 혈열토독(血熱吐衄), 목적(目赤), 인종(咽腫), 장옹복통(腸癰腹痛), 옹종창종(癰腫瘡腫), 어혈경폐(瘀血經閉), 질타손상(跌打損傷)의 증상을 치료하며, 외용(外用)할 경우 수화탕상(水火燙傷)을 치료한다²⁾.

대황의 약성(藥性)은 산열(散烈)하여 정기(正氣)를 손상(損傷)시키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며, 신중하게 투약해야 한다. 또한 변비, 출혈, 황달 등 여러 방면에 걸쳐 효능을 갖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증상에 사용할 때는 각각에 적절히 맞추어 사용할 필요가 있다. 대황은 고래(古來)로 고유한 약효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부작용을 저하 및 제거하고 약성을 변화시키거나 완화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수치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작용부위(作用部位)를 변화시키거나 치료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치(修治)한다. 이를 통해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한약의 독성의 감소, 강력한 약효에 따른 부작용의 완화, 원하는 약효의 증가, 증상에 맞는 약효 작용 부위의 국한 혹은 확대 등을 위하여 약재에 일정한 방법으로 가공을 가하여 원하는 효능을 얻어내는 한방 제제 기술을 수치(修治) 또는 포제(炮製)라고 한다.

대황이 조선 시대에는 어떻게 수치를 하였으며 그 수치 방법을 통하여 대황의 약효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아보고자 조선중기까지의 의서를 집대성한 『동의보감(東醫寶鑑)』과 조선후기의 『제중신편(濟衆新編)』을 선정하여 대황이 사용된 처방을 조사하였다.

『동의보감』과 『제중신편』에서 대황 사용 처방을 선택하는 기준은 본 처방에서 약명이 들어 있어야 하고, 가감(加減)³⁾에 사용된 대황은 제외하였다. 또, 환(丸), 산(散), 고(膏)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대황의 수치방법은 제외하였다. 대황의 수치방법 중 현재 혼용되고 있는 증(蒸)의 수치방법은 숙(熟)에 포함⁴⁾시켰으며 다른 수치법의 경우에는 모두 분별하여 기술하였다. 처방중 일방(一力)이라고 하여 의서(醫書) 중에는 나타나 있으나 뚜렷하게 처방명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생대

1) 번역 중약대사전 1324-1325.

2) 신민교, 임상본초학, 785, 영림사

3) 한의학의 처방구성법에 있어 환자의 증상에 맞게 한약재를 넣고 빼는 방법을 가감(加減)이라고 통칭한다.

4) 동의약총론, 조선과학출판사, 영인일월서각, 69-79, 1995

황(生大黃)의 경우는 수치대황이 아니기에 제외하였다.

각 처방에서 수치대황의 효능에 대해서는 첫째, 처방에서 대황의 효능을 밝힌 것을 따랐다. 둘째, 처방 내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그 치료병증의 항목에서 밝힌 것을 그 다음으로 하였다. 셋째, 항목에서 밝히지 않았다면 『본초강목』의 효능주치⁵⁾를 위주로 치법과 관련하여 처방구성과 약대(藥對)에 따라 본초를 구별하여 대황에 적절한 효능을 부여하였다.

『제중신편』에 실린 처방의 갯수는 약 541개⁶⁾인데 그 중 대황을 사용한 처방은 64개이고 생대황을 사용한 처방의 개수는 51개이고, 수치대황을 사용한 13개이며, 수치대황중 초대황(炒大黃)과 생대황이 함께 사용된 처방이 1개 있다. 수치대황을 사용한 처방 중 11개의 처방은 『동의보감』의 처방과 같으

며 양간환(涼肝丸)과 거독탕(祛毒湯)은 『동의보감』에 기재되지 않았다. 양간환은 출전이 『입문』으로 되어 있고, 거독탕은 『회춘』으로 출전을 기재하고 있어서 『동의보감』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 처방임을 알 수 있다.

『동의보감』에는 4066개의 처방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황이 사용된 처방은 304개이다. 그 중 31개의 처방이 수치대황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생대황과 수치대황을 함께 사용하는 처방이 2개, 각각 다른 4가지 수치방법으로 법제한 수치대황을 사용하는 처방이 1개이다. 따라서 298개의 처방에서 생대황⁷⁾이 사용되었다.

『동의보감』과 『제중신편』에 나타난 대황을 사용한 처방중 각각의 수치법에 따른 처방의 갯수를 아래 표 2.로 정리하였다.

5)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는 대황(大黃)의 기미(氣味)가 쓰고[苦] 차가우며[寒] 독성이 없다[無毒]고 하였다. 그 주치(主治)로는 어혈을 내리고 혈관의 막힌 곳을 뚫으며[下瘀血而閉] 한열증을 치료하고[寒熱] 징가적취를 없애고[破癥瘕積聚] 속에 오래 머물러 내려가지 않은 음식을 내리며[留飲宿食] 장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蕩滌腸胃] 오래된 노폐물을 밀어내 새롭게 하며[推進致新] 음식물의 통로를 뚫어 잘 운행시키고[通利水穀] 비위의 기운을 조화시켜서 음식물의 소화를 쉽게 하며[調中化食] 오장의 기운을 화평하게 하여 안정시킨다[安和五臟] <본경(本經)>. 위(胃)의 역상(逆上)하는 기(氣)를 내리는 위의 기능을 강건하게 하여 기운을 내리고[平胃下氣] 담음이 맺혀 실한 것을 제거하고[除痰實] 대소장의 열이 맺힌 것을 풀어주며[腸間結熱] 가슴과 배가 그득하고 답답한 것을 풀고[心腹脹滿] 여자의 한기(寒氣)에 의한 경폐(經閉)와 하복부의 창통(脹痛)을 고치고[女子寒血閉脹] 아랫배의 통증을 낮게하며[小腹痛] 오래된 어혈을 제거한다[除老血留結] <별록(別錄)>. 여자의 월경이 막힌 것을 통하게 해주고[通女子經候] 수종을 낮게하며[利水腫] 대소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利大小腸] 열에 의한 종기에 붙여 치료하며[貼熱腫毒] 소아의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한열을 치료하고[小兒寒熱時疾] 번열을 끄고 농을 삭인다[煩熱蝕膿] <견권(甄權)>. 일체의 기를 편안하게 하고[通宜一切氣] 혈맥을 조절하며[調血脈]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利關節], 수기(水氣)가 멎쳐 막힌 것을 배출시키고[泄壅滯水氣] 온장열학을 치료한다[溫瘧熱癘] <대명(大明)>. 모든 실열(實熱)이 맺혀서 딱 막힌 것을 뚫어 풀어주고[瀉諸實熱不通], 하초의 습열을 제거하며 [除下焦濕熱] 숙식을 소화시키고[消宿食] 명치끝에 그득한 증상을 없앤다[瀉心下痞滿] <원소(元素)>. 적백리를 치료하고[下痢赤白]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자주하는 증상을 치료하고[裏急腹痛]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며 뿌옇고 가려운 증상을 치료하고[小便淋瀝] 실열에 의해 대변이 건조한 것을 풀어주며[實熱燥結] 조열에 의해서 정신이상으로 이상한 말을 하는 증상을 고치고[潮熱譫語] 황달과(黃疸) 모든 화상을 치료한다[諸火瘡]고 하였다 <사진(時珍)>.

6) 김종렬, 박찬국, 『제중신편』의 연구, 1992.

7) 수치대황(修治大黃)의 상대로서 수치하지 않은 대황(大黃)을 지칭한다.

- 표 2. 『동의보감』과 『제중신편』에서 대항을 사용한 처방의 수

수치법	동의보감	제중신편	수 치 방 법
生	229	51	날 것을 사용하는 방법
煨	22	3	축축한 것으로 써서 가열된 滑石粉 속에 넣어 굽는 방법
蒸	5	2	시루 등의 용기에 넣고 찌서 일정한 정도로 찌는 방법
炒	3	1	文火 혹은 中火의 균일한 화력으로 균일하게 볶는 방법
酒蒸	17	5	술을 보료로 사용하여 찌는 방법
酒煨	3	1	술에 축여 잣불에 묻어 굽는 방법
酒煨	1		술에 담근 후 고온(300-700℃)으로 煨燒하는 방법
酒製	1		酒浸이나 酒蒸 등 술을 사용한 수치 중에 한가지 방법
酒浸	5		술에 담가놓는 방법
酒炒	4	1	술을 뿌리면서 文火의 균일한 화력으로 굽는 방법
酒浸炒	1		酒浸 후에 酒炒를 한 수치방법
酒洗	1		술로 깨끗하게 씻는 방법
醋炒	2		식초를 뿌리면서 文火의 균일한 화력으로 굽는 방법
醋煨	1		식초에 축여 잣불에 묻어 굽는 방법
醋浸	2		식초에 담가놓는 방법
醋蒸	1		식초에 담갔다가 오래도록 볶아서 수분이 없도록 한 것이나 화력(火力)에 의해 건조시켜 汗液이 없도록 익히는 방법
泔浸	1		씻거나 細切한 후 米泔水(쌀뜨물)에 담그는 방법
生薑灸	1		일정량의 薑汁과 함께 섞어서 炒하거나 끓이는 방법
酒煮	1		씻거나 細切한 후 일정량의 술과 함께 煎하는 방법
醋煮	1		씻거나 細切한 후 일정량의 식초와 함께 煎하는 방법
童便煮	1		씻거나 細切한 후 일정량의 동변과 함께 煎하는 방법
鹽水煮	1		씻거나 細切한 후 일정량의 식염수와 함께 煎하는 방법
소계	304	64	

『제중신편』에서 기재된 처방 중 수치대항을 사용한 처방은 다음 표 3.과 같다.
한 처방과 그 수치방법에 따른 분류와 사용한 병증

표 3. 『제중신편』에 기재된 수치대황 사용 처방과 그 효능

종류	처방명	출처	처방의 효능	대황의 효능
煨	內局瀉靑丸	肝病虛實	肝實	清熱涼血
	七聖丸	脫肛	肛門痛不可忍	瀉下通便
	桂苓湯	浮腫氣分 血分證	血分	治浮腫
蒸	四順清涼飲	火有虛實	熱血	清熱涼血
	脾約丸	脾約症	小便數大便難	清熱通便
酒蒸	踈風順氣元	老人秘結	腸胃積熱 二便燥澀 諸風秘 氣秘 皆治之 老人秘結 尤宜	瀉下通便
	清心滾痰丸	癲癩	癲癩驚狂 一切怪證 專治痰火	清熱瀉下
	滾痰丸	痰飲通治	濕熱痰積 變生百病	除濕熱
	鷄鳴散	人咬傷	金刃傷 打撲傷 血瘀癡積 煩悶欲絕	行瘀血瀉下
酒浸蒸	竹瀝達痰丸	痰塊	能運痰 從大便出 不損元氣妙	清熱瀉火
酒煨	羌活導滯湯	腳氣治法	腳氣初發 一身盡痛 或肢節腫痛 便尿阻隔	消積導滯瀉下
酒炒	涼肝丸	五軟五硬	肝膽伏熱 脣面俱紅 肌膚熱 筋緩項軟 又治痘後目赤腫痛	清熱涼血
炒	祛毒湯	諸般惡瘡	一切無名腫毒初起	解毒消腫

『제중신편』에 기재된 대부분 처방의 경우 『동의보감』에 기재된 처방과 내용과 효능 주치가 같았으며 주초(酒炒)대황이 사용된 양간환(涼肝丸)와 초법(炒法)으로 수치한 거독탕(祛毒湯)은 『동의보감』과 다르게 새롭게 기재된 처방이다. 양간환은 소아의 오연오경에 사용되는 처방으로 간담(肝膽)의 복열(伏熱)에 의해 생긴 오경(五硬)증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이 처방은 주초(酒炒)의 수치법을 통하여 청열량혈(淸熱涼血)의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거독탕은 천산갑(穿山甲)등 농(膿)을 삭이는 약과 함께 거풍(祛風)시키는 강잠(僵蠶)으로 탄하(吞下)하여야 하는 약으로 생대황(生大黃)으로는 청열하고 초대황(炒大黃)으로 해독소종의 효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사순청량음(四順淸涼飲)은 『제중신편』에서는 열혈(熱血)이라고 표현한 반면, 『동의보감』에서는 혈열(血熱)이라고 표현하였고, 칠성환(七聖丸)은 『동의보감』에서 후음(後陰); 항문양통(肛門痒痛)에서 기재된 반면 『제중신편』에서는 탈항(脫肛)에 나오는 차이가 있다. 계령탕, 계명산도 처방의 내용이나 처방의 효능은 같으나 『제중신편』의 분류와 『동의보감』에서의 분류가 다르게 되어 있다. 또한 내국사청환(內局瀉靑丸)은 처방명이 다르고 『동의보감』과 처방내용이 같은데 ‘내국(內局)’이라고 한 것은 궁중에서 쓰이는 처방임을 밝힌 것이라고 한다.⁸⁾

『제중신편』이 『동의보감』보다 후대에 저술된 의서이며, 또한 저술 목적이 『동의보감』의 보충이라는

8) 김종렬, 박찬국, 『제중신편』의 연구, 1992.

점에서 볼 때 중요한 변화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중신편』에 실린 처방에서 수치대황의 효능을 분석하는 것은 『동의보감』의 처방을 다시 분석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방 내에서의 대황의 효능에 대한 분석은 『동

의보감』의 처방에서 효능 분석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동의보감』에서 기재된 처방중 수치대황을 사용한 처방과 그 수치방법에 따른 분류와 사용한 병증과 처방의 효능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동의보감』에 기재된 수치대황 사용 처방과 그 효능

종류	처방명	출처	처방의 효능	대황의 효능
蒸	脾約丸	大便門 脾約證	小便數 大便難 名爲脾約證	清熱通便
	四順清涼飲	火門 熱有晝夜之分	血熱	清熱涼血
	枳殼剉散	脹滿門 熱脹	熱脹	清熱瀉下
	抵當湯	寒下門 傷寒血證	一切瘀血結胸 譫語漱水 等證	清熱瀉下
	黃甘散	癰疽門 癰疽五發證	外因四氣生癰疽	清熱解毒消腫
炒	大麻仁丸	大便門 大便秘結	婦人風秘	瀉下通便
	導赤元	小便門 小便不通	膀胱有熱 小便不通	除下焦濕熱
	陣玉丹	諸傷門 顛撲墮落壓倒傷	諸折傷	止血定痛
酒煨	羌活導滯湯	足門 脚氣治法	脚氣初發 一身盡痛 或肢節腫痛 便尿阻隔	消積導滯瀉下
	枳實大黃湯	足門 脚氣治法	濕熱脚氣腫痛	清熱除濕
	既濟解毒湯	癰疽門 大頭癰治法	天行大頭癰 頭面赤腫而痛	清熱解毒消腫
酒煨	消核丸	諸瘡門 結核	頸項耳後結核 三五歲成簇 不紅不腫不作膿者	消積導滯
酒製	內消沃雪湯	癰疽門 胃脘癰	胃脘癰 及肚癰內疽	清熱消積祛瘀
酒浸	二黃湯	癰疽門 大頭癰治法	大頭癰初起	清熱瀉下
	大黃湯	大便門 膿血痢	熱痢 膿血稠粘 裏急後重 日夜無度	清熱瀉火
	竹瀝達痰丸	痰飲門 痰塊	能運痰 從大便出 不損元氣妙	清熱
	沉香交泰丸	脹滿門 濁氣在上則生臌脹	濁氣在上 生臌脹	清熱
	海金沙散	小便門 諸淋通治	五淋	除下焦濕熱
酒炒	清咽利膈散	咽喉門 咽喉閉通治	通治乳蛾喉閉 等證	清熱瀉下
	退雲散	眼門 瞖膜	外障瞖膜覆瞳子	清熱
	響聲破笛丸	聲音門 因雜病失音	因謳歌失音	清熱
	荊黃湯	頭門 熱暈	風熱眩暈	清熱
酒浸炒	大黃散	頭門 熱暈	眩暈不可當	清熱瀉火
酒洗	玄參散	咽喉門 懸雍垂	懸雍腫痛	清熱瀉下
醋炒	葛根湯	寒上門 傷寒陽毒	陽毒	清熱
	黃連散	黃疽門 黃疽治法	黃疽癰熱 二便秘澀	清熱瀉下

종류	처방명	출처	처방의 효능	대황의 효능
醋煨	醋煮三稜丸	積聚門 腸覃石瘕血蟲證治	血蟲	消積導滯
醋浸	化痞丹	積聚門 痞塊證治	消積塊專攻之劑	消積導滯
	延年護命丹	積聚門 積聚癥瘕痞積塊通治藥	三十六般積 二十四般氣 及血積虫積	消積導滯
醋熬	血極膏	胞門 通血治法	月閉不通	通血脈
泔浸	全真丸	下門 下藥	三焦壅滯 大小便不通 浮腫脹滿	瀉下利水腫
生薑灸	大黃湯	嘔吐門 嘔吐噎膈反胃宜通大使	冷涎反胃 其候欲發時先流冷涎 次則吐食此 乃勞證治不早死在朝夕	平胃下氣
酒煮	無極丸	胞門 血結成癥	經閉有血塊苦痛	行瘀血 破癥瘕積聚
醋煮				
童便煮				
鹽水煮				
煨	加味金花丸	火門 通治三焦火	瀉三焦火 止嗽化痰 清頭目	清熱瀉火
	麥煎散	火門 骨蒸熱	骨蒸黃瘦 口臭 肌熱盜汗	瀉下通便
	三黃元	火門 積熱	三焦積熱	清熱瀉火
	鷄頭丸	小兒門 語遲行遲	小兒諸病後不能言	清熱解毒
	龍膽湯	小兒門 小兒繼病魁病	微微下利 寒熱往來	清熱瀉火
	鎮肝丸	小兒門 急驚風	急驚風熱	清熱瀉下
	秦芫當歸湯	後陰門 肛門疼痛	痔漏 大便結燥疼痛	瀉下通便
	七聖丸	後陰門 肛門疼痛	肛門痛 不可忍	瀉下通便
	斷紅元	後陰門 腸風臟毒	腸風	瀉下通便
	當歸郁李仁湯	後陰門 肛門疼痛	痔漏 大便硬 努出腸頭 下血苦痛	瀉下通便
	寬腸丸	後陰門 肛門疼痛	痔大便秘澀痛	瀉下通便
	大聖溶川散	下門 下藥	一切水濕 又下諸積之聖藥	瀉下通便
	宣毒丸	下門 下藥	下濕熱 通利二便	瀉下通便
	消毒飲	眼門 外障	臉生風粟	清血行瘀
	黃芪散	眼門 外障	漏睛膿出	清血行瘀
人參瀉肺湯	肺臟門 肺病治法	肺實熱	清熱瀉火	
含化丹	諸瘡門 結核	耳項結核	除痰實	

종류	처방명	출처	처방의 효능	대황의 효능
	加減龍薈丸	耳門 耳鳴	痰火上升 耳鳴	清熱
煨	鷄鳴散	諸傷門 金刃傷	金刃傷 打撲傷 血瘀癥積 煩悶欲絕	行瘀血瀉下
酒蒸	交泰丸	內傷門 嘈雜	胸中痞悶 嘈雜 大便稀則胸中頗快 大便堅則胸中痞悶難	清熱
	三稜化積丸	積聚門 積聚癥瘕痞痞 塊通治藥	諸般積聚	破癥瘕積聚
	疎風順氣元	大便門 老人秘結	腸胃積熱 二便燥澁 諸風秘氣秘 皆治之 老人秘結 尤宜	瀉下通便
	升麻湯	鼻門 鼻鼈	肺風瘡	清血
	桂苓湯	浮腫門 氣分證血分證	血分	治浮腫
煨	大黃飲子	大便門 大便不通	熱燥大便不通	瀉下通便
	瀉青丸	肝臟門 肝病治法	肝實	清熱涼血
	三黃枳朮丸	內傷門 食傷消導之劑	傷肉食濕麪厚味之物 悶亂不快	蕩滌腸胃
	小胃丹	痰飲門 痰飲通治藥	膈上濕痰熱積 上可取胸膈之痰 下可利腸胃之痰 惟胃虛少食者忌用 又云治風痰 熱痰 濕痰 食積痰	除痰實
	五利大黃湯	癰疽門 治癰疽大法	年少壯患癰疽 氣血盛多 二便秘澁	瀉下通便
	通天再造散	諸瘡門 大風瘡	大風癩瘡	熱解毒瀉下
酒蒸	滾痰丸	痰飲門 痰飲通治藥	濕熱痰積 變生百病	除濕熱
	清火豁痰丸	痰飲門 鬱痰	上焦鬱火 痰涎壅盛 胸膈不利 咽喉煩燥 噎塞如有 所硬 吐不出 嚥不下	清熱瀉火
	丑寶丸	神門 癩癩	一切癩癩 怔忡搖擗 難狀之疾 祛風清火 豁痰調氣 開心定志 安神鎮驚	清熱瀉下
	清心滾痰丸	神門 癩癩	癩癩驚狂 一切怪證 專治痰火	清熱瀉下
	清心湯	火門 上焦熱	上焦積熱	清熱瀉火
	清火湯	火門 通治三焦火	三焦熱	清熱瀉火
	加味僵黃丸	癩疫門 大頭癩治法	大頭癩 及蝦蟆鷓鴣等癩	清熱瀉火
	牛蒡芩連湯	癩疫門 大頭癩治法	大頭癩兼治啞瘡	清熱瀉火
	二聖救苦丸	癩疫門 大頭癩治法	增寒壯熱 頭面頸項赤腫 咽喉腫痛 昏愆 名曰大頭癩	清熱瀉火

이상을 종합하면 『동의보감』에서는 대황의 수치를 통하여 원하는 효능의 증대 내지는 부작용 감소 등의 효과를 얻었으며, 그에 따라서 원하는 질병과 환처에 정확히 약력이 작용하게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치대황이 각각의 수치법을 통하여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즉 수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아래와 같다.

① 증대황(蒸大黃)

증대황의 경우 대황의 사하청열(瀉下清熱)의 효능을 강화시킨다. 증법(蒸法)으로 대황의 한(寒)한 성질을 제거하고 증초비위(中焦脾胃)의 결열어체(結熱瘀滯)를 풀어내는 사하(瀉下)효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대황은 사하(瀉下)를 통하여 인체의 발열(發熱)을 내리기 때문에 열과 관련된 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즉, 瀉火解毒(사화해독) 작용으로 열독으로 인한 각종 창양(瘡瘍)을 치료하며, 활혈구어(活血驅瘀) 작용도 한다.

② 초대황(炒大黃)

초대황의 경우는 사하력(瀉下力)을 완화시켜 사용하는 것이다. 대황에는 청열사하(淸熱瀉下)의 효능이 가장 대표적이거나 그 이외의 효과도 있다. 이는 사하(瀉下)의 효능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효능이 표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사하작용을 제거하면 대황의 다른 효능을 질병치료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초법(炒法)을 사용하여 사하작용을通便(通便)의 효능으로 약화시킨다. 또한 하초습열을 치료한다.

③ 외대황(煨大黃)

외대황을 사용한 처방이 많다. 외대황이 생대황 다음으로 높은 사용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용된 처방이 많은 만큼 그 효능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청열사하의 작용뿐만 아니라 행어혈(行瘀血)의 효능, 수종을 치료하는 효능을 보이며 소아문에서는 효능을 확대하거나 사하작용을 예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하력을 완화시켜 배설하면서 정기를 상하지 않게 하였고 노인이나 체질이 약한 자의 장위에 적체가 남아 있을 경우 사용하고 동시에 열리초기(熱痢初起)에 사용하여 사기(邪氣)를 제거하는 효능도 함께 나타나 있다. 이는 리병(裏病)을 치료하기 위한 작용범위의 확장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하지만 포제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④ 주초대황(酒炒大黃)

주초대황은 현재 중국의 법정 수치대황이다. 대황과 술을 섞어 대황 내부에 술을 침투시킨 후에 볶는 것이다. 초법을 통하여 사하력을 약화시키고, 청열(淸熱)의 효능을 강하게 하여 술의 상승하는 기운을 이용하여 상초(上焦)까지 올라가 머리, 인후, 눈부위까지 도달시켜 주어 눈의 예막(翳膜), 인후의 열결(熱結)에 의한 실음(失音), 유아(乳蛾)에 의한 후폐(喉閉)와 열에 의한 두훈(頭暈) 증상을 치료한다. 즉 상초(上焦)의 열사(熱邪)를 대변으로 배출시킨다. 또한 혈분의 열독(熱毒)을 식히는 작용과 이혈작용(理血作用)이 강화되어 혈행(血行)을 원활하게 하고 열독으로 인한 어혈을 제거한다(活血行瘀). 즉 주초(酒炒)의 방법은 작용 약효의 강화뿐만 아니라 작용부위의 확대를 도모한 수치법이다. 또한 보료로 가한 술이 약제 내부로 들어가므로 보료의 양이 많지 않을 때에는 약제 중의 유효성분이 손실되지 않는다.

⑤ 주증대황(酒蒸大黃)

주증대황은 숙대황(熟大黃)이라고도 하는데 윤하(潤下), 청열(淸熱), 이혈제(理血劑)로 사용된다. 대황은 하초(下焦)에 작용하며 청열(淸熱), 사화(瀉火), 사하(瀉下)의 효능이 있다. 오랜 시간 술로 대황을 삶거나 찌는 주증(酒蒸)을 하면 주기(酒氣)를 많이 받아 상초(上焦)로 그 작용부위가 확대되어 전정(巔頂)에 도달하게 되며 두풍목질(頭風目疾)과 구적고병(久積固病)을 치료하고, 하초의 적체증(積滯證),

경폐(經閉), 습열사리(濕熱瀉痢) 등을 치료한다.

⑥ 주외대황(酒煨大黃)

주외대황은 한인열용(寒因熱用)의 원리에 따라 열사로 인한 병증에 성질이 한(寒)한 대황을 사용하기 위하여 대황의 찬 성질을 술로써 약화시킨 것이다. 또한 술의 통혈맥(通血脈)의 효능으로 각기(脚氣)를 치료한다.

⑦ 주침대황(酒浸大黃)

주침대황은 용약법 중에 한인열용(寒因熱用)의 원리에 근거를 둔 수침법이다. 한인열용(寒因熱用)은 찬 성질의 약을 열병(熱病)에 사용하려면 뜨거운 성질의 보조물을 넣어 한(寒)한 약기운이 열사(熱邪)를 다스리는데 열사가 차가운 약기운을 배척하지 않고 순조롭게 받아들여지게 하여 치료한다는 이론이다. 주침대황에 있어서 발열이 있는 질환에 대황의 약성을 조화롭게 작용시키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또한 주침을 하게 되면 태양경(太陽經)으로 약효를 끌고 가기 때문에 상부의 질환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또한 작용부위를 확대시킨 예라 할 수 있다.

⑧ 주제대황(酒製大黃)

주제대황은 술로 법제한 대황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정확한 수침법이 주어진 것이 없다. 대황을 술로 법제하면 사하력이 완화된다고 한다. 또한 주(酒)로 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주침(酒浸), 주증(酒蒸)의 방법이다. 따라서 처방의 성격에 의해서 대황의 수침법이 달리 인식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위관부의 청열(淸熱), 소적(消積), 거어(祛瘀)의 효능을 보아 주외(酒煨)의 효능을 나타내고 있다.

⑨ 주침초대황(酒浸炒大黃)

주침초의 방법은 주침(酒浸)을 한 후에 초법(炒法)을 사용한 것인데 주초(酒炒)와 유사한 효과를 바라고 사용한 것이다.

⑩ 주세대황(酒洗大黃)

술로 대황을 씻으면 양명(陽明)에 들어가고 위완

(胃脘)에 작용이 이른다. 또한 약력(藥力)이 준하(峻下)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양명경의 열에 의해 발생한 현옹의 경우 청열작용을 하게 된다.

⑪ 초외대황(醋煨大黃)와 초침대황(醋浸大黃)

이 경우 초(醋)를 사용하여 단단한 것을 녹이는 효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식초는 산미(酸味), 곡직작산(曲直作酸)한다. 식초는 연산견결(軟散堅結)하고 대황은 활혈화어(活血化瘀)하므로 초외(醋煨), 초침(醋浸) 등의 초대황(醋大黃)은 우수한 화어산결(化瘀散結) 작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처방의 성격은 소적(消積), 정가적취(癥瘕積聚)를 치료하며 외(煨)와 침(浸)의 경우는 외(煨)가 이병(裏病)을 다스리는데 사용되고 있고 표병(表病)을 다스리는 데는 침법(浸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작용부위를 확장하고 그 효능을 강화시킨 수침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⑫ 주하대황(酒漉大黃)

주하법은 소핵환(消核丸)에서 한 번 사용되었다. 3년에서 5년동안 붉게 되지도 않고 부어오르지도 않고 농(膿)이 생기지도 않는 결핵(結核)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로부터 발열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수침법은 대황의 청열사하(淸熱瀉下)의 효능보다는 소적(消積)의 효능을 경항(頸項)까지 위로 올리기 위한 수침방법이다.

⑬ 초초대황(醋炒大黃)

초초대황은 갈근탕과 황련산에서 사용되었다. 갈근탕의 양독증의 경우 오하(誤下)시키지 말아야 할 설사를 시킨 것의 경우이거나 부자(附子) 등의 준열(峻烈)한 약을 사용하여 열이 심해져 발광하는 증후이고, 황련산의 황달(黃疸)인 경우 열이 맺혀서 대변이 막혀 나오지 않는(大便秘澀) 증상이 나타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갈근탕은 오하를 한 후의 양독증(陽毒證)으로 비위의 기가 손상당하여 대변이 막힌 경우에 사용되었다. 두 처방에서 사용된 초초(醋炒)의 수침법은 조실(燥實)을 녹이는 소적도체작용(消積導滯作用)이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초(醋)를

이용한 수치법은 당대(唐代) 『식료본초(食療本草)』에서 처음으로 초자(醋煮)라고 기록하였으며, 『박제방(博濟方)』에서 초침(醋浸), 『성제총록(聖濟總錄)』에서 초초(醋炒), 『보제방(普濟方)』에서 초자(醋煮)라고 기록하였으며, 현재는 식초와 함께 볶은 것이다.

⑭ 초오대황(醋熬大黃)

초오의 수치법은 소적의 효능보다 강한 화비적혈괴(化脾積血塊)의 효능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수치법이다.

⑮ 생강구대황(生薑灸大黃)

생강구는 지구(止嘔)의 작용을 갖고 있는 생강을 통해 구역(嘔逆)을 멈추고 건중(建中)의 효과를 통해 사리(瀉痢)를 치료코자 사용한 방법이다.

⑯ 감침대황(泔浸大黃)

감침대황은 감수(泔水)에 담가 약성을 변화시킨 수치대황이다. 감수(泔水)는 청열량혈(淸熱涼血), 이소변(利小便), 보비화중(補脾和中)의 효능과 함께 약재의 유질(油質)을 제거한다. 이 감수(泔水)를 통해 대황의 이소변(利小便) 효능을 강화시켜 수종(水腫)에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사하의 효능은 유질(油質)을 제거하고 이소변(利小便)의 효능을 강화시킨 것으로 약효의 확대라 할 수 있다.

⑰ 주자대황(酒煮大黃), 초자대황(醋煮大黃), 동변자대황(童便煮大黃), 염수자대황(鹽水煮大黃)

위의 방법은 어혈(瘀血)을 풀기위해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단 한개의 처방이 기재되어 있어서 효능을 파악하기 어렵다.

『동의보감』에서 수치대황을 사용한 처방 중에서 대황이 사용된 인체의 부위와 병증을 살펴보면 대소변불통, 임력(淋瀝), 각기(脚氣), 온역(瘟疫), 항문(肛門), 안(眼)질환 중 외장(外障), 징가(癥瘕), 적취

(積聚), 구토(嘔吐), 현훈(眩暈), 옹저(癰疽), 열병(熱病), 전간(癲癇)과 내상(內傷)에 사용되고 있다. 병증에 따라 수치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질환이 있는 부위를 고려하여 수치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정신질환(精神疾患)에는 주증(酒蒸)의 방법이 사용되었고, 각기(脚氣)에는 주외(酒煨)의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징가적취(癥瘕積聚)인 경우에는 초침(醋浸)과 초외(醋煨)의 방법이 사용되었고, 구역(嘔逆)의 증상에서는 생강구(生薑灸)가 사용되었으며 온역(瘟疫)에서는 주증(酒蒸)을 사용하였고, 후음(後陰)에는 외(煨)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대황의 효능은 사하작용(瀉下作用)의 보유여부와 청열작용(淸熱作用), 청혈화어(淸血化瘀)의 상하표리(上下表裏)이동이 그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량이 많은 경우 사하작용을 나타내고 사용량이 적은 경우 건위작용(健胃作用)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중신편』에 기재된 수치대황 사용처방은 총 3개로 11개의 처방이 『동의보감』과 그 내용이 같고, 거독탕과 양간환이 새롭게 기재된 처방이었으나 그 수치법도 『동의보감』 이외의 것이 사용되지 않았다. 『동의보감』에 나타난 대황의 수치법은 증(蒸), 초(炒), 외(煨), 주외(酒煨), 주증(酒蒸), 주하(酒燬), 주제(酒製), 주침(酒浸), 주초(酒炒), 주세(酒洗), 초초(醋炒), 초외(醋煨), 초침(醋浸), 초오(醋熬), 감침(泔浸), 생강구(生薑灸), 주자(酒煮), 초자(醋煮), 동변자(童便煮), 염수자(鹽水煮)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동의보감』이 저작되던 시기에 대황의 수치법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대황, 주대황, 숙대황 대황탄(大黃炭)에 비해 다양한 수치를 했으며 그 보료도 술, 식초, 감수, 생강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작용 부위와 효능 또한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 문헌

1.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DIGITAL 濟衆新編. 한국한의학연구원. 2002.
2. 동의보감국역위원회 역. 對譯 동의보감. 법인문화사. 1999.
3. 지창영, 김남일. 『濟衆新編』을 통해 살펴본 강명길(康命吉)의 의학사상. 경희한의대논문집. 1998;21(1). p. 91-104
4. 김종렬, 박찬국. 『濟衆新編』의 연구.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2;6. p. 82-84.
5. 허준. 영인 동의보감(東醫寶鑑). 남산당. 1966.
6. 편찬위원회. 동약학개론. 여강출판사. 1991.
7. 陳貴廷 등. 本草綱目通釋. 學苑出版社. 1992.
8. 대구한의과대학교. 한약재의 수치및 감별법. 일중사.
9. 신민교. 임상본초학. 영림사. p. 463-464.
10. 김창민, 신민교, 안덕균, 이경순. 중약대사전. 정담. 1998. p. 1324-1325.

※ 본 논문은 한국한의학연구원 기관고유사업(“수치한약재를 이용한 만성신염의 제제개발”, 2003)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용역사업의 연구과제(“수치한약재 및 그 함유제제의 안전성 평가연구(II)”, 2003)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